

3. 선도은행의 국제경쟁력 비교

- (선도은행의 필요성) 국제경쟁력 있는 선도은행의 출범으로 차질 없는 외자 조달 및 금융중개기능의 선진화 필요
- (합병의 시너지 효과) 합병을 시도할 경우의 시너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은행도 합병을 할 경우 세계적인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대외신인도 회복이 시급한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은행의 탄생을 통한 해외 자금 유치로 외환위기를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임

□ 선도은행의 필요성

- 최근 국내 주요 은행에 대한 무디스사의 신용 등급하향 조정으로 국내 은행의 외화조달과 정상적인 국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음
 -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차질 없는 외자 조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선도은행의 합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
 - 정부 역시 IMF와 합의한 대로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신속한 금융개혁을 추진할 방침임
 -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선도은행이 합병을 통해 만들어 질 경우 우리나라 선도은행의 국제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

□ 선도은행 합병 사례 및 합병 시너지 효과

- (합병의 배경과 사례) 주요국의 은행 합병은 은행의 대형화가 긴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연유함
 - 주로 은행간 합병을 통해 규모 확대와 경비 절감 등을 도모함으로써 '규모의 경제'를 추구하고 나아가 Know-how와 정보 기능을 집약해서 '범위의 경제'를 실현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짐
 - (미국) 미국 최대 은행인 씨티은행의 지주회사인 씨티 코퍼레이션과 트래블러스 생명-연금 보험, 살로먼 스미스 바니 증권 회사 등의 지주회사인 트레블러스 그룹은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업분야 확대를 위해 '씨티그룹'이라는

이름으로 98년 3분기까지 합병할 계획임

- (일본) 일본의 경우 90년대 들어 三井銀行이 太陽神戶銀行과 합병하여 사쿠라은행(90년), 協和銀行과 埼玉銀行이 합병하여 아사히은행(91년)을 설립한 바 있으며, 96년 4월에는 미쓰비시(三菱)은행과 東京銀行이 합병하여 東京三菱銀行을 설립하였음

- (합병의 시너지 효과) 일본의 동경은행-미쓰비시은행간의 합병(96년 4월 1일)의 시너지 효과를 살펴본 결과, 합병 비용의 증가로 97년의 시너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 98년부터는 그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
- (ROA, ROE)의 하락) 두 은행의 실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 실제로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에 은행의 ROA와 ROE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 이는 두 은행의 결합재무제표상 인건비 및 여러 가지 비용인 합병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

< 2개 일본 은행의 실제 합병시의 재무비율 >

(억 엔, %)

구분	94년	95년	96년	97년
총자산이익률(ROA)	0.14	0.09	0.06	0.04
자기자본이익률(ROE)	4.0	2.10	1.22	0.87

- 두 은행의 합병 비용 242.1억 엔(97년 순이익의 74.8%)은 97년 3월말 결산기에 포함됨에 따라 오히려 합병후 수익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음. 만약 합병 비용이 전혀 없었다면 ROE는 1.5%로 크게 높아지게 됨
- 98년 회계연도부터는 합병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
1) ROA(총자산이익률) : 투자이익률(ROI)라고도 하며, 은행이 주어진 총자산을 수익창출 활동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는가를 측정하는 척도임
 ROE(자기자본이익률) : 은행소유자인 보통주 소유자들이 그들의 투자자금에 대한 수익성을 측정하는 비율임. 즉 자기자본에 대해 은행이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얻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임. 그리고 일반적으로 ROA는 1.0% 이상, ROE는 10.0% 이상이 선진국 수준임

□ 우리나라 선도은행의 국제경쟁력

- 97년 흑자를 기록한 시중은행 또는 소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자본금 규모가 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, 세계적인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
 - 우리나라의 가상 선도은행의 자본금 규모를 97년 평균 환율 952원으로 환산할 경우 자본금 규모가 약 1,500억 달러로 나타나 세계 1위 은행의 자산규모 약 7천억 달러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
 - 또한 수익성 면에서도 ROE가 미국의 중견 은행인 시티은행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 - ROE가 95년과 96년에는 11.0%와 10.8%를 기록하고 있으나, 97년에는 경제위기 여파로 그 절반 수준인 6.4%로 크게 낮아짐. 이는 미국 시티은행의 17.1%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의 동경-미쯔비시 은행보다는 높은 수준임
- 시너지 효과 분석상 우리나라의 경우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건전 은행 중심의 신속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
 - 대외신인도 회복이 시급한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은행의 탄생을 통한 해외 자금 유치로 외환위기를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임

< 합병 후 우리나라 선도은행의 수익성 >

구분	95년	96년	97년
ROA	0.54	0.47	0.28
ROE	11.0	10.8	6.4

주: 모든 합병비용은 고려하지 않았음

< 미국 시티은행의 수익성 지표 >

구분	94년 12월말	95년 12월말	96년 12월말	97년 12월말
ROA	1.29	1.29	1.40	1.22
ROE	21.43	18.33	18.95	17.10

주: J.P.모건 은행의 경우에도 자기자본이익률(ROE)은 94년부터 97년까지 각각 12.9%, 13.6%, 14.9%, 13.4%를 나타내고 있음

(천 일 영 iycheon@hri.co.kr ☎724-4013)